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시민교육 방안

도 경 은 (Do Kyung-eun) \*

(E-mail : kedo7@naver.com)

논문접수일 : 2013년 12월 8일

논문심사일 : 2014년 0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2월 20일

---

\* 학위취득대학 : 조선대학교

현직: 한세대 시간강사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시민교육 방안

## <국문요약>

한국 사회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단일민족의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를 이겨내며 함께 이사회에 동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통해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이 곧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독일 시민교육과 한국사회의 시민교육 현실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정부 대책을 학술지와 논문 등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등 인터넷 자료, 관련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향후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방침과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를 통한 집중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교사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게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심어주는 교육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넷째,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주제어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강사, 자아존중감, 차별과 편견, 이해와 존중

## I. 서 론

21세기 한국 사회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에 입국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외국인인 겨우 38만 명에 불과하였고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한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5만 명으로 이 중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14만8천명에 이르고 이들의 국적도 139개국에 이른다.

자료(여성가족부 2013)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은 2만5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출신국적별 구성은 중국(조선족 등 한국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사용하는 언어 역시 다양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문제를 들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자녀의 교육문제는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교육적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적 측면이다. 다문화 자녀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가정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노출빈도가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향후 학업능력, 교우관계에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를 이겨내며 함께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 시민교육에 관한 정책 및 교육과정에는 미국교육학계의 이론과 사례들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이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론과 교육과정이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독일의 사례만 살펴 본 이유는 미국은 다문화로 형성된 나라임으로 한국의 현실에는 전통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중유럽에 위치한 국가로서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된 유럽통합과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현상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모해왔다. 독일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사회통합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현실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독일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통해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행 독일 시민교육과 한국 사회 시민교육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정부 대책을 학술지와 논문 등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등 인터넷 자료, 관련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향후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방침과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다문화가족

### 1. 다문화가족의 현황

다문화가족(여성가족부 2013)이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외국국적동포, 새터민 등 서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한다.

<표 1> 다문화가족의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
·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 탈북자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혼 가정
	·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 탈북자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즉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유형 <표 1>을 보면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은 가정형성배경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범주화하여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하여 형성된 가정,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및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에 혼인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그리고 탈북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한다(강영실 2010).

이렇게 여러 형태의 가족이 구성되는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를 보면 주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 동포의 유입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해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가 이뤄졌으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른 진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화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지영 2013).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 통계, 2013)

년 도	총 혼인수	외국인과의 혼인	혼인 비중%
2007	343,559	37,560	10.9
2008	327,715	36,204	11.0
2009	309,759	33,300	10.8
2010	326,104	34,235	10.5
2011	329,087	29,762	9.0
2012	327,073	28,326	8.7

<표 3>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이혼 통계)

년 도	총 이혼수	외국인과의 이혼	이혼 비중%
2007	124,072	8,294	6.7
2008	116,535	10,980	9.4
2009	123,999	11,473	9.3
2010	116,858	11,088	9.5
2011	114,284	11,495	10.1
2012	114,316	10,887	9.5

<표 2>을 보면 총 혼인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2007년 10.9%에서 2012년 8.7%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표 3>에서 전체 이혼 건수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7년 6.7%에서 2012년 9.5%로 혼인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에 반해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과의 이혼율이 상승하는 결과 요인 뿐 아니라 다문화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 다문화 가족 현황

년 도	합 계 ( 천명 )
2007	142
2008	168
2009	199
2010	221
2011	252
2012	267
2013	281

<표 5> 다문화 자녀의 수

년 도	합 계 ( 천명 )
2007	44
2008	58
2009	107
2010	121
2011	151
2012	168
2013	191

<표 4>다문화가족 수는 2007년 약 14만2천명에서 2013년 28만1천 명으로 2007년 대비 거의 2배 증가 한 것에 반해 <표 5>다문화 자녀 수는 2007년 4만4천명에서 2013년 19만1천명으로 거의 4.3배 증가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 다문화 자녀수의 증가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다문화가족 중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적응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2. 다문화가족 문제점

앞서 말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의 증가와 그 자녀들 수의 빠른 증가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적인 삶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문제들 중 <표 6>에서 한국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으로 언어적 문제 21.1%,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 19.8%과 외로움 14.2%였다. 일반적인 경우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방식과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언어적 어려움을 가장 힘들어 하였고 그 다음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도 근본적으로 보면 언어적 소통이 힘든 상황이기  
에 직업선택에 어려움과 본인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다문화가족은 이중언어 환경으로 이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언어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언  
어적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들이 함께하  
는 다문화자녀에까지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파생시키  
고 있다. 이는 다문화자녀들이 한국어에 노출되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부족한 데  
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령기 이전인 영·유아기에는 외국인인 보육자(주로 어머니)의 서  
투른 한국어 때문에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다문화자녀들은 이해  
언어와 표현언어 모두에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  
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재 다수의 학자들이 밝히고 있  
는 견해이다(채영란·지성에 2010). 영유아가 최초로 언어적 상호작용  
을 시작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며, 어머니가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  
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언어 표현력과 조직력이 늦게 발달되는 것  
이다(한은숙 2013). 이 같은 원인으로 다문화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  
보다 언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며, 한국어 구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매  
우 낮는데 이는 다문화자녀들이 말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에 한국말이 서투른 부모의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늦어져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김주원(2012)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은 취학 이후에 학습능력 부진 현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언어 기능의 부진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저하로까지 그 문제점이 전이  
된다.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한국어 능  
력의 문제가 학업 능력의 저하와 사회 정서적인 불안감과 소외 현상  
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양한 교과 지식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학업 능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

라 교우 관계 등의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켜 집단 따돌림, 자신감 결여, 소외 현상 등의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에 들어서 아동 문제로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에 선진국에서는 아동복지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은 1990년대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아동복지에 집중하는 해로 정하였고(Gustavsson and Segal 1994),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와서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의 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Daniek and Ivatts 1998). 이를 통해 한국사회도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문화 자녀수도 크게 늘어가고 있어 앞으로 미취학 아동들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학교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자녀는 친구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차별을 당하는 주 대상이 친구 36.5%인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 또한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다문화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취학률이 낮게 나타난다.

<표 6>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점

구 분	비율 (%)	구 분	비율 (%)
언어문제	21.1	경제적 어려움	19.8
외로움	14.2	관습, 문화차이	6.5
가족간 갈등	3.0	편견과 차별	7.0
자녀양육, 교육	7.0	음식	2.0
은행 등 기관이용의 어려움	2.1	기후	0.6
힘든점 없음	15.8	기타	0.8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정보제공과 교육,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 서비스, 중도입국자녀 다시 말해 외국에서 성장한 이들은 재혼하는 결혼이민자의 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63.8%가 15세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정착지원 등 다문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neews 2013/03/25). 다문화 자녀의 낮은 취학률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표 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

구 분	비율 (%)	구 분	비율 (%)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23.8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9.7
가정형편의 어려워서	18.6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5.1
부모의 이혼 등 가족문제 때문에	5.1	한국어를 몰라서	5.0
어린 아이들과 다니는 게 싫어서	2.7	기타	30.0

또한 <표 7>을 보면 다문화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사유인 경우가 23.8%로 가장 많고 가정형편의 어려움인 경우는 18.6%,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중단한 경우도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공부가 어려워서라고 답한 다문화 자녀들은 그 이유로 책의 내용과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학업 이해의 저하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위축되며 산만한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어려워져 주위 환경에 부적응하게 되

면서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성장의 저해현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고정화 된 성격으로 남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연지 2003).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면 학업성취나 직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인지지능’ 보다 ‘정서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서지능은 학교, 가정, 직장에서 여러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으며 약물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Brackett 2001; Formica 1998; Mayer and Perkins et. al. 2001; Rubin 1999).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정서지능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Salovey and Mayer 1990)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화, 타인을 이해해주고 격려하여 협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Goleman 1995; Mayer and Salovey 1997).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Alegre 2011). 정서 발달이 뇌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시기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적응이 중요하다(Goleman 1995). 그 밖에 다문화자녀의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언어 및 학습저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장이해력이나 문장의 의미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오성배 2007) 특히 학령기 다문화 아동들은 글쓰기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안원석 2007).

이 밖에 연구들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고하고 있다(천숙향 2009; 황상심 2009). 가정환경은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특히 부모와의 언어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은희 2004). 다문화아동의 언어문제가 개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적절한 언어교육이 추가적으로 병행된다면

일반아동들과의 격차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박주희·남지숙 2010). 김순규(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에서는 성적과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교생활의 긍정적 경험을 증가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비교과 과정을 통해 다름과 차이의 진정한 의미와 다양성의 긍정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감과 배려를 습득할 수 있고 이는 긍정적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나아가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유아의 놀이가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고 선행 논문들이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가상놀이(pretend play) 또는 사회극놀이(sociodramatic play)는 확산적 사고, 상상력, 사고의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등의 창의성에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Johnson 1976; Russ 2003; Saracho 2002). 그 밖에 아동들은 본인이 체험한 기쁨, 슬픔, 실패, 분노 등 다양한 경험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시키며 잠재의식 속의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 등 느낀 것을 미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이숙희·유승연 2007).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사상과 감정을 미술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Lowenfeld and Brittain 1982).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인식된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국 미술교육진흥협의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s Education)는 1983년 이래 미술교육 관련연구 및 프로그램들의 조사를 근거로 아동이 미래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미술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도 맞벌이 부부의 증대로 방과 후 교육과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를 정서적 측면에 좋은 매체인 미술로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미술은 기존의 다른 과목과는 상이한 사고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키워줌으로써 어른이 되었을 때 겪는 문제들을 여러 대안으로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미술을 수학, 쓰

기, 읽기, 과학과 같은 다른 과목과 결합시키면 학생들은 다른 과목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또한 미술이 학생들의 학교, 인생, 직장 등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전영신·노병일 2000).

이상과 같이 다문화 가족들은 언어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이는 이해언어와 표현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저하와 또래들과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아동발달에서 정서지능은 학업성취나 직장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정서지능 발달의 기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정서지능발달이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 및 학습저하 극복을 위해서 가정과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과과정을 통한 다름과 차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다문화이해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언어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부적응 행동을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방법과 비교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교과적인 방법이란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게임, 놀이나 상황극, 등으로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이는 교육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술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을 언어교육에 활용한다면 그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때문에 여러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의 충원이 요구된다.

### Ⅲ. 다문화가정 시민교육

#### 1. 독일 다문화가정 시민교육사례

독일은 1973년까지 일정기간동안 외국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과도기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 외국인 통합정책이 수립될 수 없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이 지연되고 가족과 함께 독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발생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어 1977년 통합모델로 정책화되었다.

장준호(2011)는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다문화 시민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은 비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흐름과 1990년대 냉전 이후 글로벌화의 현상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오면서 외국인들의 사회통합문제가 국가적문제로 인식되어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시민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재화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독일의 기본법을 익히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치를 습득하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독일어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하여 이주 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장준호 2011). 이러한 대응이 한국의 교육정책과 다문화시민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간문화간 통합정책에 입각해서 독일 뮌헨시는 사회통합이 도시의 평화와 연대감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합을 촉진하는 다문화 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면서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일어 구사 능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토벡(Vertovec 2002)은 다문화주의는 다양

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고유한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샐러드 그릇 (salad bowl)’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강희원 2006; 한상우 2010, 69 재인용).

독일 학자들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 문화에 대한 배려와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학습,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의 이해, 교육과 언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한상우 2010). 독일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갈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values)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언어 습득에 있어 부모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다문화 가정이 서로 신뢰를 쌓고 교류할 수 있는 파티, 다문화 축제, 저녁식사나 간담회 등의 초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표8> 독일학교 운영형태

독일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근무 형태</li> <li>- 정규직(주간 29시간 근무)</li> <li>- 비정규직 (주간 15시간, 19시간, 20시간 등 자율근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일반 운영 - 방과 후 학교 도입</li> </ul>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교사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재교육 실시</li> <li>-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14시간 다문화 교육 실시</li> </ul>

<표 8>을 보면 독일 학교 운영 형태의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의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TO-Modell을 운영하였는데 TO는 좋은 도움과 성과는 최고로 (Tolle Hilfe Erfolg Optimal)의 약자이다. 또 종일반 운영으로 방과 후 학교를 도입해 독일어와



수학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두 반을 세 반으로 차등별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아이들 스스로 반을 선택할 수도 있게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하였다. 부모와 학생을 위해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을 일으킨 슈프탈러(Schöfthaler 1984)는 교육정책의 목표를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 다문화 시민교육은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평한 태도를 통해 세계시민적 소양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사들은 분기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1년에 14시간씩 다문화 교육을 받게 했다. 독일은 학교운영에서 부모와 교사의 다문화 통합교육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았다. 학생들에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예술인을 만나 토론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통합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사회관계능력 향상을 위해 한 공간에 모여 신체를 움직여 같은 동작을 따라 함으로써 통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국은 같은 인간이며, 피부색깔과 모국어가 달라도 서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통합의식을 높이는 수업이었다(장준호 2011). 독일 다문화교육의 특징을 보면 자유로운 시간선택의 교사의 근무형태와 부모와 교사의 재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초대 프로그램, 비교과적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독일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자유로운 근무 형태와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대한민국 다문화가족의 교육 활용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 교사들이 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한 교육은 문화 간의 소통과 학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의 시민교육

한국의 교육은 개인의 삶에 필요한 교육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도덕과목에서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지구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다. 세계화의 의미 속에는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규범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세계인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세계시민의식, 세계인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등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에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1세기 국가의 발전과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 비즈니스, 물류, 교역, 금융 등 지식기반산업의 복합적 전략기지로 동북아 경제 및 학술 교류와 분쟁과 협력 해결의 장으로서 각국 정상 회담이나 주요 국제회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형성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심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 도덕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 윤리는 타문화의 존중과 이해, 양보와 타협, 인간존중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양희·구미향 외(2009)는 아동의 시민성 향상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참여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아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경험들은 수용과 배려

라는 시민의 자질 그리고 타인간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인은 학교교육에서 세계시민 양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화공존사회를 위해 학교는 미래의 통합된 세계 사회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도덕성 원리에 근거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시민의식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의 효과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때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상에서 나타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표는 윤리, 도덕 교과 전체의 연계성이나 범주에 유의하여 구성하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은 세계화에 대한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실천적인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승미·김상돈 외(2009)는 한국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세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내용이 세계주의적 입장보다는 국가주의 입장에 치우쳐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추상적인 지식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발달에 미흡하고 한민족의 순수성, 우월성 등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은 궁극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켜 저개발 문화권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배영주(2013)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의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유사한지 탐구하고 탐색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전달식 교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화를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다문화 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식을 통한 실천과 성찰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이 학교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활성화 될 때 문화적 배경이 다른 공동체의 상호존중과 태도 배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은 문화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미래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차별과 편견 없는 태도 즉, 다양한 문화와 한국 고유의 문화를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세계시민적 소양도 길러주어야 한다(장준호 2011).

서종남(2012)은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시민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고 다문화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민문화와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함으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사려 깊은 시민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항원(2007)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가치교육이며 세계시민은 인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국적, 피부색,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세계인들을 똑 같이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과 관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의식과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들을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의식으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특히, 인간의 가치를 알기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교육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 한다. 선행논문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성격발달 및 사회적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이고,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우울, 불안, 중독, 비행과 같은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을 완화하는데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여러 문화권에서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고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사회심리적 차

원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주장하고 있다(Diener and Diener, 1995; Myers and Diener 1995).

자아존중감은 살아가는데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기반이 되고 개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총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회적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한다면 청소년의 지각, 성격,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행복 및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Myers and Diener 1995).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경험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형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순규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정적 문제나 행동적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준다(Anderson 1999; 김순규 2012). 연구자들은 아동기에 또래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친사회적 배려, 나눔, 도움행동과 같은 사회성 구성요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Markovitsb and Benenson et. al. 2003). 이렇게 아동기에 형성된 사회성은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한국 사회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의 모든 이들은 올바른 것을 보는 눈을 통해 세계 모든 문제를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언어와 전통이나 생활 습관,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글로

별 시대에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차별 의식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와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매일신문 2013.11.26).

이상과 같이 한국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의 차별적인 시각과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교육기관에서는 민족 중심의 문화를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 IV. 한국 사회의 노력 결과

세계화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앞에서 독일의 사례와 한국의 시민교육을 알아보았다. 이제 한국사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는지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여성가족부와 (사)한국다문화센터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자녀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합창대회를 시작했다. 특히 결과 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했는데 그 결과 이들 중에는 이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앞으로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광주일보 2013.06.19). 또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의식을 함양시키고 올바를 교육관을 지닌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시킬 목적으로 다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OSEN

2013.08.08). 한 예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의 ‘북(Book)적(適)북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을 ‘세계문화지도자’로 육성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강사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한국뿐 아니라 몽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과 교수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나라와 한국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구촌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결혼이민자들은 다양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사회를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들이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와 함께 배우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매일신문 2013.06.15).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해 온 이중언어강사들을 통해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태세를 갖고 세계 여러 문화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제주 다문화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가, 민족, 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세계시민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제주일보 2013.09.22). 또한 한남대 다문화교육원장은 “다문화가정 여성이 원어민이라는 점과 체계적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라는 강점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을 학교와 유치원에 접목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충청투데이 2013.11.28).

연합뉴스는 자회사인 보도전문채널 뉴스Y, KOICA와 함께 ‘나눔의 코리아, 나도 코리안’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다문화가족들은 KOICA가 펼치는 나눔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엄마 나라’에서 느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엄마 나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모습에서 앞으로 양국 간

미래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연합뉴스 2013.03.12). 그 밖에 서울에서는 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에 한국말이 서툰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 삼성동 센터 시설에서 운영하며 교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보통교과’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음악, 미술, 체육 및 미술치료 등의 ‘대안교과’로 나뉜다. 또 창의적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및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3.04.16).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소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가정과 학교에서 느끼는 현장 인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은 대부분 이주 1세대인 부모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이다.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왕따의 표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아직 다문화 학생을 가르친 교육 경험이 적은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고충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문화 가정과 학교가 느끼는 체감지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은 다문화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지낸 것으로 알고 있어 서로의 인식차이를 통해 다문화 자녀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결혼 혹은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부모를 따라 뒤늦게 중도 입국한 외국 태생 자녀는 대부분 한국말도 서툴러 아예 학교 밖에 방치되기도 한다. 학교에서 피부색, 언어 등 때문에 소외당한 다문화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문제도 교육당국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현재 한 부모 가정 아이 등에 국한돼 있는 가정방문 지도를 다문화 가정 아이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별개로 국가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 나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2.02.21). 선행연구들은 문화와 예술 활동요소들을 결합해 놓은 통합문화예술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하고 있다(서울문화재단 2010; Wright and John et. al. 2006; 김현수·조수현 2012).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생활안정, 학교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를 설치했다.

해비치 재단은 2010년 11월 기초과학 및 예술 분야 우수학생 지원, 국내 최대 규모 다문화가정 교육기관 설립, 소외계층 교육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비치 재단 종합교육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4년간 5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희망뉴스 2011.11.23).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는 다문화 자녀들이 또래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태권도 교실을 열고 있다. 센터에서는 프렌즈 가드(친구 지킴이) 운동과 다문화 자녀,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이 낯선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태권도 수업 이외에도 현재 100여명의 다문화 자녀에게 한국어, 컴퓨터, 미술, 합창 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취업 교육과 자격증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 밖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문화일보 2012.03.07). 또한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자녀들에게는 엄마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이들이 이중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고 자기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수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열린 다문화사회를 기르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BS 2011.03.23).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중언어강사 통한 언어의 극복과 학습효과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자신감 충전을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을 학교와 교육시설에 접목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중언어강사들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태세를 갖고 세계 여러 문화권과 더불어 나아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나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 민족, 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세계시민성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당당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IV. 결론 및 제언

단일 민족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진정한 다문화사회란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이다. 다문화사회의 기본원칙으로 각각의 인종은 평등하고 모든 문화들도 각각 그들만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가진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한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대의 시민성은 다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인은 상황에 따라 여러 다양한 정체성을 소화해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이한 정체성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연구에서는 보다 작은 집단,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의 차원에 주목해야 다중 시민성의 갈등을

해소하기 수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Heater 1990) 다른 연구에서는 국가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이타심이 국가의 이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는 애국심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Niebur 1960).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외모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실현은 어느 한 쪽의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자국의 문화를 알리면서 교류를 확대한다면 지역사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시민의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함으로서 배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일상적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을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경험과 상호 공통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유사성을 통한 단일성의 강조가 인종차별주의나 다양한 편견과 차별감소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반성적 사고 능력의 개발을 통한 자기성찰의 과정보다 우수한 개인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 간의 경쟁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김옥순 2010).

브릭스(Briks 1997)는 다중 정체성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용기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시민은 상이한 수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책이나 목표들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여러 문헌과 자료를 통해 본 방안들이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언어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각 장에서 언급한 바와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법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아래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들에게 이중언어강사를 통한 집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를 꼽았는데 이것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는 향후 학업능력, 교우관계에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제주시와 대구시와 같이 이중언어강사를 결혼이민자들로 활용하면 이들에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문화가족들에겐 언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와 부모 나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한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위해 시간선택교사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숨어있는 전문 인력들 즉, 미술, 음악, 운동, 컴퓨터, 마술 등 다양한 전문 능력을 가진 자들로 주부이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은 하루 종일 시간을 낼 수 없는 자로서 자신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시간의 선택 폭을 넓혀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거나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정부나 교육현장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다문화 교과과정 중에 이중언어강사와 접목시키거나 방과 후 교실에서 다문화 자녀들의 학업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셋째, 다문화가족에게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심어주는 교육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논문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성격발달 및 사회적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이고,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우울, 불안, 중독,

비행과 같은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을 완화하는데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형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순규 2012). 이것은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이중적인 언어와 문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는 자기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며 타인의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언어적 문제점을 겪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행복한 삶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노력과 정부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인은 정부에선 이들을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불이익 극복 방안과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도 다양한 문화들이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존재하고 사회적 재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한국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그들도 한국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함께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강영실, 2010,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역할에 대한 소고”, 『교회사회사업』, 제14집, pp. 135-161.
- 강희원, 2007,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0집 2호, pp. 5-34.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집 6호, pp. 109-128.
- 김연지, 2003, “놀이를 통한 미술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옥순, 2010, “아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26집, pp. 8-27.
- 김주원, 2012, “다문화가정의 유아언어발달을 위한 동화표현 활동”, 백석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향원, 2007,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방안”, 『백록논총』, 제4집 1호, pp. 73-90.
- 김현수·조수현, 2012, “미술 중심 통합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7집 6호, pp. 145-173.
- 박주희·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제21집 2호, pp. 129-152.
- 배영주, 2013,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제44집 2호, pp. 145-167.
- 서울문화재단, 2010, 『2010 어린이 창의 Art-TREE 방과 후 돌봄 교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 서울문화재단.
- 서종남, 2012,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8집 1호, pp. 83-110.

- 신지영, 2013, “청소년 지도자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태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제22집, pp. 186-213.
- 윤희원, 2007,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언어 한국어 교재 초급 연구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양희·구미향·정영선, 2009, “세계시민으로서의 아동”, 『아동학회지』, 제30집 6호, pp. 183-194.
- 이숙희·유승연, 2007, “상담적 상상 기법(Guided Imagery)을 활용한 아동미술의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11집 2호, pp. 311-329.
- 장문강,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19집, pp. 196-234.
- 장준호, 2011, “독일 초등학교의 다문화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집 3호, pp. 134-156.
- 전영신·노병일, 2000, “미술교육의 아동복지관련 효용성”, 『미술교육논총』, 제10집, pp. 163-185.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집 3호, pp. 33-52.
- 채영란·지성애, 2010, “동화를 활용한 토의·미술 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제14집 3호, pp. 317-336.
- 천숙향,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와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상우, 2010,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

- 과학논총』, 제20집 3호, pp. 65-86.
- 한은숙, 2013, “동화역할극이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황상삼,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5세 전·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이론과 실천』, 제10집 3호, pp. 265-281.
- Alegre, A., 2011,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What Do We Know?”, *Family Journal :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Vol. 19, No. 1, pp. 56-62.
- Anderson, C. A., 1999,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Lonelines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5, pp. 482-499.
- Anderson, L., 1979, *Schooling and Citizenship in a Global Age: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Global Education*, Bloomington: Social Studies Development Center, Indiana University.
- Brackett, M. A.,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Life Spa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Briks, H. M., 1997, “Glob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of philosophy, University of Toronto.
- Daniel, Paul and John Ivatts, 1998, *Children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 Diener, E. and M. Diener,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pp. 851-864.
- Diener, Ed and David G. Myers,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 6, pp. 10-19.



- Formica, S. 1998, "Description of the Socio-Emotional Life Space : Life Qualities and Activitie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senior honors thesi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ustavsson, N. S. and E. A. Segal, 1994, *Critical Issues in Child Welfare*. Thousands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Heater, D., 1990, *Citizenship: the Civic Idea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 Hoff, E. and L. Naigles, 2002, "How Children Use Input in Acquiring Alexicon", *Child Development*, Vol. 73, pp. 418-433.
- Johnson, J. E., 1976, "Relations of Divergent Thinking and Intelligence Test Scores with Social and Nonsocial Make-Believe Play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47, pp. 1200-1203.
- Lowenfeld, V. and W. L. Brittain, 1982, *Creative and Mental Growth* (7th ed), New York: MacMillan.
- Markovitsb, Henry, Roya, Rosanne, Denkoa, Paul and Joyce Benensona, 2003, "Behavioural Rules Underlying Learning to Share: Effects of Development and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7, pp. 116-121.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 Intelligence?", in. Salovey, P.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1.

- Mayer, J. D., Perkins, D. M., Caruso, D. R. and Peter Salovey.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Giftedness", *Roepers Review*, Vol. 23, pp. 131-137.
- Niebur, R.,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Y: Charles Scribner's Son's.
- Rubin, M. M., 1999, "Emotional Intelligence and Aggression in Urban Adolescents", Unpublished manuscript, Immaculata Collge, Immaculata, PA.
- Russ, S. W., 2003, "Play and Creativity: Developmental Issue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pp. 291-303.
- Saracho, O. N., 2002,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Pretend Pla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 172, pp. 431-438.
- Salovey, Peter and John D. Mayer, 1990, "Emotion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 Schöfthaler, Traugott, 1984, "Multikulturelle und Transkulturelle Erziehung: Zwei Wege zu kosmopolitische kulturelle Erziehung",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Vol. 30, No. 1, pp. 11-24.
- Wright, Robin, John, Lindsay, Ellenbogen, Stephen, Offord, David R., Duku, Eric K. and William Rowe, 2006, "Effect of a Strutured Arts Program on the Psychosocial Functioning of Youth from Low-Income communities: Findings from a Canadian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6, pp. 186-205.

< INTERNET MATERIAL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410,](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410)  
2013/09/22.

<http://enews.mogef.go.kr/view/board> 2013/03/25.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sub\\_code=&bbs\\_number=477&page=1&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sub_code=&bbs_number=477&page=1&keycode=&keyword=)  
2013/06/19.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79&page=1&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79&page=1&keycode=&keyword=) 2013/07/18.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58&page=2&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58&page=2&keycode=&keyword=) 2013/03/12.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61&page=2&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61&page=2&keycode=&keyword=) 2013/04/16.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sub\\_code=&bbs\\_number=447&page=3&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sub_code=&bbs_number=447&page=3&keycode=&keyword=)  
2012/02/21.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37&page=3&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37&page=3&keycode=&keyword=) 2011/11/23.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49&page=3&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449&page=3&keycode=&keyword=) 2012/03/07.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sub\\_code=&bbs\\_number=481&page=1&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sub_code=&bbs_number=481&page=1&keycode=&keyword=)  
2013/08/08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386&page=5&keycode=&keyword,](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bbs_number=386&page=5&keycode=&keyword=) 2011/03/2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9982&yy=2013,](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9982&yy=2013) 2013/06/1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45,](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45)  
2013/11/26.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141>.  
2013/11/2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9982&yy=2013](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9982&yy=2013), 2013/06/15.

##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 Ahn, Won-Seok, 2007, “Study on The expressive skill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Bae, Young-Ju, 2013, “The Roles of World Citizens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ld Citizenship Education”,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4, No. 2, pp. 145-167.
- Chae, Young-Ran and Sung-Ae Chi, 2010, “The Effect of Discussion-Art Activities using Storybook on Multicultural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Creativ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4 No. 3, pp. 317-336.
- Chun, Suk-Yang, 2009, “A Study on Peer Relationships and Language Developmen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ngkyul University Master’s thesis.
- Han, Eun-Sook, 2013, “The Influence of Role Play to Linguistic Skills of Children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ngju University Master’s thesis.
- Han, Sang-Woo, 2010, “The German Integration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German Society of Social Sciences*, Vol. 20, No. 3, pp. 65-86.
- Hwang, Sang-Shim, 2009,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ccording to Ages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0, No. 3, pp. 265-281.
- Jeon, Young-Shin and Byeong-Il Rho, 2000, “The Utility of Art

- Education for Child Welfare”,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Vol. 10, pp. 163-185.
- Jeong, Eun-Hee, 2004,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Vol. 13, No.3, pp. 33-52.
- Kang, Young-Sil, 2010,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ask and Role of Church for Them”, *Church Social Work*, Vol. 14, pp. 135-161.
- Kang, Hwi-Won, 2006, “Integ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actors and Policy Directions”,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0, No. 2, pp. 5-34.
- Kim, Soon-Gyu, 2012,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6, pp. 109-128.
- Kim, Yeon-Ji, 2003, “Study on How the Children are Influenced by Painting Through Play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aster’s thesis.
- Kim, Ok-Soon, 2010, “Effects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for Children on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Forum for Youth Culture*, Vol. 26, pp. 8-27.
- Kim, Ju-Weon, 2012, “A Study on Storytelling Activities for Languag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ng Children”,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 Kim, Hang-Won, 2007,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Schools Plan”, *Journal of Collecge of Education*, Vol. 4,

No. 1, pp. 73-90.

- Kim, Hyun-Soo and Soo-Hyun Cho, 2012, “The Effects of the Arts-Centered Integrated Arts and Cultural Education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Sociability in Pre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6, pp. 145-173.
- Lee, Yang-Hee, Koo, Mee-Hyang and Young-Sun Chung, 2009, “Children as Global Citize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0, No. 6, pp. 183-194.
- Lee, Sook-Hee and Seung-Yoeun Yoo, 2007, “The Study of Guided Imagery for Creative Development in 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1, No. 2, pp. 311-329.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Investigation into Re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Nationwide*, Seoul.
- Park, Joo-Hee, Nam Ji-Suk, 2010,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1, No. 2, pp. 129-152.
- Shin, Ji-Young, 2013, “Department of Life Lo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Master’s Thesis.
- Suh, Chong-Nam, 2012, “A Desirable Futuristic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Young-A Study Based on Survey of Multicultural Perceptions among Youths”, *Education Culture Research*, Vol. 18, No.1, pp. 83-110.

# Citizenship Training Plan for 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Do Kyung-Eun  
(Hansei University)

## Abstract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our society is moving from a mono-cultural society of a homogeneous na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n influx of foreigners into the country in an effort to secure labor force for economic growth and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Therefore, multi-cultural families composed of member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are easily seen/common these days, and they try to adapt themselves to this society in spite of cultural and linguistic problems. We should realize the necessity of citizenship training through the problems encountered by multi-cultural famil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alize that citizenship training is the best way to the citizen of the world.

I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 have done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 and our society's citizenship training realities. Also, I have referred to preceding research data like academic



journals and theses and Internet data of media report to comprehend government plan and instruction method to lead our society to the citizens of the world. And I proposed some rational alternatives of educational policy and support direction for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a result, Firstly, intensive language education by bilingual instruct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necessary. Secondly, we should employ a lot of flextime instructors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education. Thirdly, we need education for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nd give them chances to make social participation. Fourthly, our society members should cast awa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ltiple cultures with open minds and thoughts and should understand and respect differences. Contribu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arious races and cultures to social development as a member of our society will be an opportunity toward citizens of the world.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bilingual instructors, self-estee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understand and respect